

2023년 12월 1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18편 2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40장 1~5절(구약p.800)

1.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 말씀선포 /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라

세상에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한 자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지적, 도덕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천하 만물을 때를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여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나 자신이 약함을 알고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함을 말씀하십니다.

- 본문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움을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옴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라고 부르십니다.

“트집 잡다.” 라는 히브리어는 “잇소르”로서, 그 뜻은 “바로 잡는 사람, 개정자, 책망하는 사람, 꾸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탓한다.”라는 단어는 “모키아흐”로서 “앞에 나서 논증하고 변론하며, 고치고, 판결하고, 심판하며,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옴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던 것과는 대조적인 표현으로 옴을 칭하십니다. 트집 잡거나 탓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또 상대방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의인인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한 것과 친구들이 찾아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괴롭게 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변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옴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38:2)라고 평가하십니다. 분명 옴은 친구들과 논쟁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왜 의로운 옴이 이토록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이러한 잘못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옴의 경우처럼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그 뜻에 순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 2. 스스로 비천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 본문 3~4절입니다. “옴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옴은 자신이 비천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비천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칼로티”인데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며 세상에 휩싸여 갑니다. 지금 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깊은 능력과 영광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볍고, 믿음이 가벼우며, 그 생각도 행함도 모두다 가볍게 행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자신의 비천함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옳은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가벼운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하여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사 함께 하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은,

## 3.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복종합니다.

- 본문 4~5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옴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도록 입을 가릴 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옴이 갑자기 임한 재앙으로 인해 의문을 가지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행위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명했습니다(출14:13).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는 불공평한 현상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시37:3).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털썩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사53:7).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기 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불공평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순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삶 속에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 폐 회 / 주기도문